20121206

치 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는 훈훈한 겨울입니다. 이러한 온기의 나눔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 자비와 행복을 나누는 '제9회 수화사랑음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듯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소리로 전하는 음악회를 통하여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고, 불이사상을 전파하는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행복의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수화사랑음악회를 개최하신 해성스님께서는 오랜 시간 묵묵히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이타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직업적응 및 재활사업과 문화 복지사업에도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노력들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며, 널리 귀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제한으로 인한 편견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장애를 떨쳐 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수화사랑음악회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